



확진자 셋 중 한명 60대 이상... 피해 커질라

방대본, 최근 2주간 발생 코로나19 현황 분석 결과 위중·중증 환자수 일평균 82.4명으로 직전 6배 급증

최근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 3명 중 1명은 감염병에 취약한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에 위중·중증 환자 수가 일평균 82.4명으로 집계되면서 직전 2주에 비해 약 6배로 급증했고 사망자도 25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월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7일 이같이 발표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최근 2주간 일평균 274.8명으로 직전 2주(8월 9~22일) 162.1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해외유입 일평균 확진자 수

는 2주간 11.5명으로 직전 2주(12.1명)보다 다소 줄었다. 2주간 발생한 확진자를 연령별로 보면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60세 이상의 비율이 직전 2주에 비해 늘었다. 직전 2주간 60대 이상은 31.7%를 차지했으나 최근 2주간 이 연령층은 34.8%로 3.1%포인트 늘었다. 이에 비해 비교적 경증·무증상 환자가 많은 20~30대 비율은 직전 2주간 25.2%에서 최근 2주간 22.9%로 2.3%포인트 줄었다.

고령환자가 많아지면 위중·중증 환자도 늘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

능성도 커진다. 실제 최근 2주간 위중·중증 환자는 일평균 82.4명으로 직전 2주간 14.8명에 비해 무려 67.6명이나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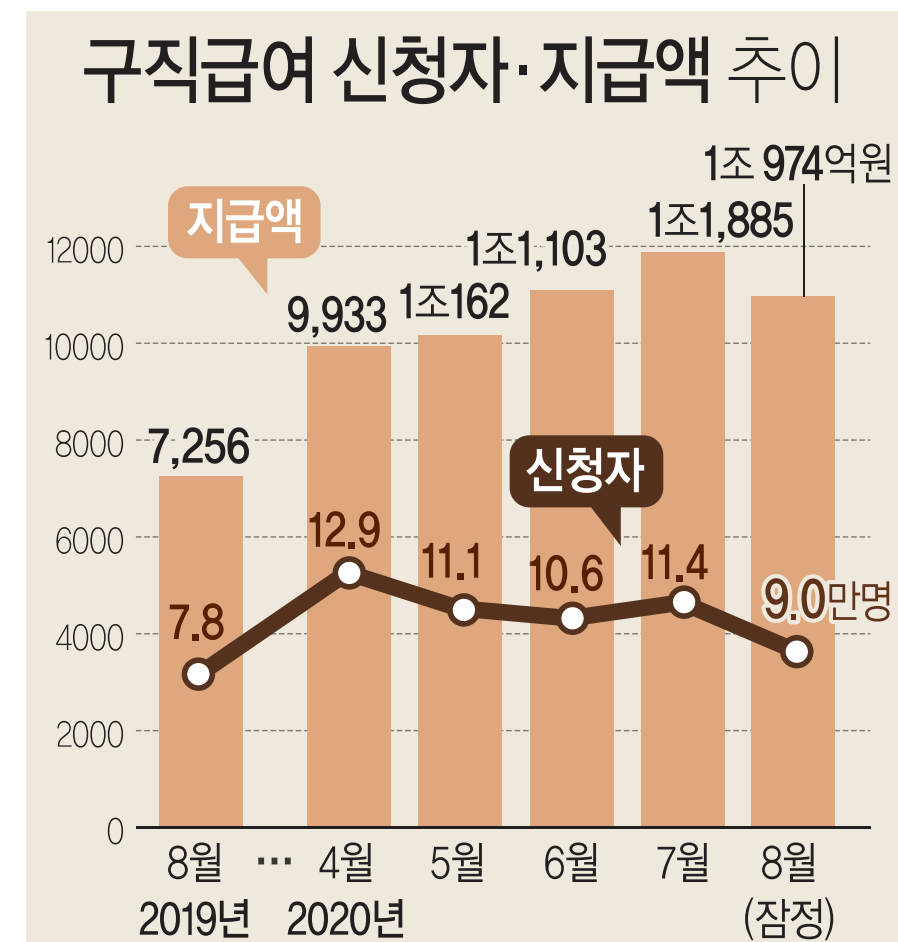
최근 2주간 사망자는 25명이고 연령별로 보면 90대 4명, 80대 12명, 70대 8명, 60대가 1명 등이다. 사망자 25명 중 대부분인 24명은 기저질환(지병)이 있었다.

또 최근 2주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집단발생으로 인해 감염된 경우가 1785명(44.5%) 가장 많았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1150명(28.7%)이었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도 852명(21.3%)이나 됐다.

구체적인 감염 경로도 60대 이상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다단계 업체, 투자설명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천안 동산교회 등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에서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發) 감염 사례와 같은 GH그룹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S, V, L, G, GH, GR 등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GH그룹은 다른 그룹의 바이러스보다 세포에서 증식력이 2.6~9.3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직급여 지급액 4개월째 1조원대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974억원으로, 직전 동월(7256억원)보다 3718억원(51.2%) 급증했다.

“추석 전주 상황 따라 특별방역 수준 결정”

정부 조만간 세부내용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추석 연휴기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특별방역 조치와 관련, “2단계에 준하는 조치는 추석 전주의 코로나19 유행 상황

이 얼마나 안정되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클럽과 유흥주점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중단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곧 발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은 추석을 계기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지 않도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2단계 조치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등을 골자로 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전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추석전에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단계 조정이 검토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며 “추석이 끝난 이후에도 전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수

준에서 단계가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수도권에는 현재 강화된 수준의 2단계 조치, 즉 2.5단계가 시행 중이며 오는 13일까지 계속된다. 그 밖에 전국에는 2단계가 20일까지 적용된다.

중대본은 이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수도권 신규 확진자도 78명에 그쳐 지난달 15일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내려온 데 대해 “확산세가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통 큰 국민 먼저 돕는 게 공정”

이낙연 대표 첫 국회 연설서 4차 추경안 조속 처리 당부 공공기관 이전 등 의지 피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고용취약계층·매출감소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하는대로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당정청이 전달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다”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먼저 또다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전국 민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국가균형발전도 더 미룰 수 없다.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

한 바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사업 선결과 예산 배정이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방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파업 전공의도 오늘 진료 복귀... “의대생 불이익시 대응” 불씨 여전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며 “이게 비대위 공식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단체행동 1단계는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고 병원별 비대위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애초 알려진 단계별 파업 5단계에서는 1인 시위와 파켓 시위 내용이 1단계에 포함돼 있었으나 이날 새롭게 공개된 로드맵에선 적시되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대전협 비대위의 단계별 단체행동은 >1단계는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 각 병원 비대위 >2단계는 전공의 필수유지 업무 외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업무 유지 >3단계는 전공의 전원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자원봉사 형태 등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현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이 구제

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 보호는 당연한 전제”라며 “2주 내 (의대생)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대생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업무 중단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의대생 전원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과 모든 전공의를 지키는 건 당연한 전제”라고도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파업 유보’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전체 전공의에게 설명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까지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협이 이미 더 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이어갈 명분이 희미해졌다고 보고 있다. 의협과 여당,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위촉 공고

여성가족부
제주도청 복지청소년과에 속한 청소년단체로서 전도에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위원을 위촉합니다.

모집부문
1. 사)제주청소년연합도지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위원
2. 43개 읍·면·동 지역 마을회장(남·녀)

모집기간
2020년 9월 1일 ~ 10월 30일까지

제출서류
※ 신변상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분에 한함
이력서(연락처 기재)
증명사진 2장(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신분증 부착)

제출처
우편번호 63225 제주시 연삼로 470번지

사)제주청소년연합도지부장
연락처 : ☎ 746-1318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방지 가시식, 청진가시 수도매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